



인터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시직

1. 현 직장 및 하시는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보통신정책을 연구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원의 기관 중 디지털경제사회 연구본부의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에서 디지털 산업 혁신 사업이나 지능정보사회 정책, AI 전략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원, AI나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적 긴급 정책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현장 수요 맞춤형 정책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에서 주로 참고하고 있는 법률은 크게 행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ICT 규제 관련한 법률들로 저의 전공인 법학과 아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서도 법제도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2.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위한 준비사항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채용절차나 준비사항들을 제가 속해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예시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구 책임자로 채용되길 원하신다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채용절차는 총 3차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서류전형에서는 창의성, 발전가능성, 연구분야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데 이 때 연구분야 전문성이란 직무기술서에

나와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사전지식을 잘 갖추고 있는지 서류로써 평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1차로 서류전형을 통과 하게 되면 2차로 발표세미나 및 인적성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보통 석사학위 논문을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하게 되고, 그 외에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교 수업과 관련되어 있거나 본인이 특별히 관심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채용에 지원하려는 업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발표세미나가 이루어집니다. 이 2차 평가에서는 전공분야 전문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잠재적 연구역량 등이 평가기준이 되는데 이러한 역량들은 발표를 마치고 이어지는 질의응답을 통해 많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성검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있는 'NCS', 즉 표준능력시험을 뜻합니다.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부담을 가져야 하는 시험은 아니지만, 시간 제한이 큰 시험이기에 관련 서적을 통해 미리 연습을 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차 면접전형에서는 1,2차 전형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 및 성실성, 의지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주로 평가합니다. 채용절차는 이렇게 1,2,3차로 이루어지는데요,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부분을 잘 숙지해 놓는 것이 합격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무기술서에 대한 내용을 덧붙여 조언하고 싶습니다. 직무기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무수행내용입니다. 이 직무수행내용에 관한 부분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어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평가에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부분에 본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어필할수록 최종합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현재 받고 계시는 임금이나 복지수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의 연봉에 대해서는 '알리오'라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기업의 채용공고문에는 처우, 대우, 연봉,

임금 등에 대해서 추후 협의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공기관은 이 알리오 홈페이지를 통해 연봉이나 평균 임금을 모두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가 궁금하시다면 알리오 시스템을 참고해보시면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4. 마지막으로 법학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야기 했던 부분들을 요약한 내용들과 저의 조언을 몇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 지침이나 기준을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첨부되어있는 직무기술서를 꼭 참고하셔서 직무수행의 내용이나, 필요지식, 필요기술, 직무 수행의 태도, 직업기초 능력을 모두 자기소개서 안에 잘 녹여내야 한다는게 취업준비의 포인트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해서 외부의 대행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해당업무에 얼마나 관심있고, 이해도가 높은지, 그리고 연구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하여 진정성있게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이겠습니다.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로 첫 번째는 여러분이 국내외 최신동향이나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책연구기관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책적인 요구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외 최신동향이나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하루일과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국내외 최신동향 자료를 통해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일이고요, 정책 간행물이라든지 주요 뉴스를 보거나 논문이나 보고서를 살펴 보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서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이 해외 주요국의 사례입니다. 특히 법제도 파트에서는 국내외에서 현행 규제가 어떻게 규정되어있고, 해당 규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 연구나 동향에 대한 리서치 능력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이 외국어 활용 능력인데요, 따라서 학생들이 외국어 학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